에너지 신기술 한자리…한전 'BIXPO 2026' 개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오는 4-6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서

198개사 참여·46개 컨퍼런스 세션 운영

'아이온큐' 창업자 김정상 교수 기조연설

스타트업 투자관 신설…상담·체험 마련

한국전력이 오는 4-6일 사흘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BIXPO 2026(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을 개최한다.

1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로 11회를 맞는 BIXPO는 '혁신과 가능성의 만남(Tech Innovation meets Possibility)'을 주제로 열리며, 국내외 198개 기업이 선보이는 혁신 기술을 살펴보고, 에너지 산업의 최신 기술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개막식 기조연설은 양자컴퓨팅 기업 '아이온큐(IonQ)' 공동창업자인 김정상 미국 듀크대 교수가 맡는다.

아이온큐는 2021년 양자컴퓨팅 전문기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설에서 연구실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계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한다.

전시회에는 국내외 198개 기업이 참여해 기술의 실제 모습을 전시와 체험으로 선보인다. '에너지 리더스 서밋(ELS)'과 'KEPCO R&D 컨퍼런스' 등 총 46개 세션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비접촉 생체신호 측정 기술과 넥밴드형 AI 안전관리자 등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스타트업 투자관'을 신설한다. 에너지·전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스마트 산업 등 4개 분야의 유망기업 100개 사와 투자사 39개 사가 참여한다. 기술 전시와 투자 상담, 관람객 체험이 함께 이뤄지는 '스타트업 타운'에서는 40개 기업의 투자 유치 발표와 일대일 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더불어 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 전략도 함께 모색한다. 11월 5일 열리는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in BIXPO 2026'에서는 공공 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와 글로벌 투자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투자·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사업 확장 경험을 공유하고, 혁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행사에서 마련한 교류의 장을 바탕으로 기업과 투자자의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BIXPO를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성장 기회를 찾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선옥 기자

3분기 은행 중기 대출 등 연체율 '빨간불'

5대 시중은행 연체 9년만 최고 수준

원화대출 연체율 2017년 이후 최고

도소매업 0.71%·건설업도 0.69%



PC용 D램 가격 5.8% 상승…역대 최고치 경신 메모리 반도체 공급 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D램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30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0월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7.5달러로 전월(26달러)보다 5.77% 상승했다. 트렌드포스는 D램 공급업체들이 서버용 메모리로 생산능력을 전환하면서 PC용 D램 공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D램 업체들의 내년 PC용 D램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공급 상황에 따라 감소 폭이 40%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했다.사진은 1일 서울의 한 대형 마트의 노트북 판매대. /연합뉴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등 대출 연체율이 9년 반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금리 상승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은 0.42%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분기(0.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3분기(0.37%)보다 0.05%포인트(p), 전분기(0.39%)보다 0.03%p 올랐다.

전체 기업 대출 연체율은 0.49%로, 2017년 2분기(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작년 동기(0.42%) 대비 0.07%p, 전분기(0.45%) 대비 0.04%p 상승했다.

2017년 초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기업대출 연체율이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0%로 2017년 1분기(0.65%) 이후 최고였다.

중기 연체율은 작년 3분기 0.54%에서 4분기 0.49%로 떨어졌다가 올해 1분기 0.57%, 2분기 0.58% 등으로 상승세다.

내수 부진 등으로 매출과 현금흐름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까지 이어지며 취약 기업을 중심으로 상환 여력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연체율도 3분기 0.18%로 2021년 2분기(0.19%) 이후 가장 높았다. 작년 동기(0.07%)보다 0.11%p, 전 분기(0.08%)보다 0.10%p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 상승은 중앙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개시 등 일부 거액 여신 부실에 따른 일시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은행들의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 연체율이 0.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건설업(0.69%), 숙박 및 음식점업(0.55%), 부동산업(0.51%),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49%), 제조업(0.36%) 순이었다.

소비 회복 지연과 매출 부진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업종에서 연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말 가계 연체율은 0.33%로 전 분기와 같았다.

작년 3·4분기 말(0.30%)에 이어 올해 1분기 0.32% 등으로 완만하게 높아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체율은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이 겹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 프리미엄 한우, 중동 진출 교두보 마련

aT, UAE·오만 유통기업 바이어간담회

해남 이현농장·오만 MLS사 수출 MOU

전남광주 지역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한우의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해남 한우농장과 오만 현지 육류 유통기업이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지역 한우의 중동시장 진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9-30일 목포와 해남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 등 중동 주요 육류 수입·유통기업 바이어를 초청해 수출간담회와 생산현장 방문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초청행사는 지난해 한국산 한우의 UAE 첫 수출을 계기로 조성된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전남광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동물복지형 사육환경과 무항생제 생산관리 등을 통해 차별화한 고품질 한우를 고부가가치 수출상품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출간담회에서는 전남광주 한우산업 현황과 해남 이현농장의 프리미엄 한우 생산·관리 사례가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은 한우 품질과 할랄 인증, 수출 조건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현농장과 오만 육류 유통기업 MLS Foodstuff Trading L.L.C는 프리미엄 한우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동물복지·무항생제 방식으로 생산한 한우의 안정적인 공급과 현지 유통망 연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태호 기자

기후에너지부,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청정수소 개설물량은 500GWh/연, 거래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 3년을 거쳐 2030년까지 개시해야 하며, 수소 혼·전소 발전설비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간의 사업지연 제재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 연료도입 안정성,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6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박선옥 기자

로또복권

〈제 1248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6 18 27 36 38 42 /보너스 22		
1등	1,933,658,450	6개 숫자 일치
2등	53,122,485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480,597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